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0~9/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초기불교 입문 : 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6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3	대반열반경(불교경전 12)	강기희 역	민족사	8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4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그림	운주사	9	초기불교 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 : 계초심학인문 읽기	성태용	북튜브	10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법정	책읽는섬

책세상

위대한 스승 밑엔 위대한 제자 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 헬무스 헥커 지음
비구 보디 엮음 / 김충현 번역
운주사 / 3만6000원

냐나뽀니까, 헬무스 펴낸 〈법륜〉
비구 보디가 한 권으로 엮어내
부처님 제자 24명 면면들 조명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 삼존상 중 마하가섭상(사진 왼쪽)과 아난존자상(사진 오른쪽)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는 흔히 삼보(三寶)로 불리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를 따르는 승가이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담은 책들은 수없이 나와 있는 반면, 부처님 당시의 승가(구성원)를 다룬 책은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제자들의 삶과 수행, 그리고 유산〉은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독일 출신 수행승 냐나뽀니까와 불교 작가인 헬무스 헥커가 펴냈던 부처님 제자 전기 '법륜'을 미국불교협회장 비구 보디가 한 권으로 엮었고 김충현 춘천불교방송 총국장이 번역한 것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함께하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한 수행자들 중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빨리 경전과 주석서들의 기록을 토대로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신분, 성별, 나이, 계급, 재산, 배움, 영적 능력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어떻게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삶과 깨달음의 과정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진리의 길임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그 길은 출가자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우리 자신도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번뇌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열반이야말로 부처님의 목표이면서 모든 불자들의 목표이다. 부처님이 발견하고 가르치신 진리(담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며 정확하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영원한 행복, 열반의 길을 찾아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사유와 실천과 영적 능력을 바꾸어 열반으로 이끌어줌으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생로병사로 인한 괴로움을 겪던 이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떤 수행과 실천을 통해 열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책에 소개되는 24인의 제자들은 누구일까.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지혜제일로 불리는 사리뿟따(사리불)와 신통제일로 불리는 마하목갈라나(대목건련), 부처님 열반 후 승단을 이끌어간 마하깟사빠(대가섭), 부처님의 시자이자 법의 보물창고 역할을 한 아난다(아난), 천안제일 아누룻다(아나율), 논의제일 마하깟짜야나(대가전연)를 비롯하여, 여성 제자들로는 가장 위대한 후원자로 꼽히는 위사카,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고 왕비가 된 말리까, 지혜가 으뜸인 비구니 케마, 빠르게 최상의 지혜를 이룬 밧따 꾼달라케사, 죽은 아이를 안고 약을 찾아다닌 끼사고따미,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쏘나, 세존의 여동생 난다, 자비의 화신 사마와띠 왕비,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가운데 으뜸인 빠따짜라, 몸 팔던 여인 암바빨리, 청정한 믿음을 지닌 웃따라와 기녀 시리마, 세 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씨다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살인자였던 앙굴리말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시주자였던 아나타삔디까(급고독 장자), 마지막으로 법을 설하는 데 으뜸인 찟따 장자, 여섯 번 환속하고 일곱 번 출가하여 끝내 아라한과를 성취한 찟따 비구, 부부로서 사랑과 수행의 조화를 보여준 장자 나꿀라삐따와 아내 나꿀라마따도 있다.

이렇듯 책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태어난 배경도, 살아온 과정도, 직업이나 나이, 성별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겪고 있는 괴로움도 다르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갖춰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한 존재로서 하나가 된다.

이들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서 현재의 우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수행하여 열반을 성취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열반에 이르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위대한 스승 아래서 수학한 위대한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다.

불교 잡지 톺아보기

조선 스님들은 왜 가마를 메었나

'월간 불광' 9월호



'월간 불광' 9월호(통권 587호)는 '조선의 B급 스님들'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사찰과 스님들의 일상을 다뤘다. 조선시대에는 사찰과 스님들이 많은 부역(賦役)을 담당했다. 스님들이 산성을 축조하거나 방어하는 신역(身役)을 담당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도 종이, 부채와 각종 채소를 관아에 납품했다.

스님들이 해야 했던 신역 중 가장 고된 일은 가마를 메는 일이었다. 사대부들이 금강산, 지리산, 변산을 유람할 때면 스님들이 가마를 태우며 유람에 동행했다. 선비들이 산속에서 머무는 곳 역시 사찰이었다.

'월간 불광' 9월호에서는 △가마를 멘 스님들 △두부를 만드는 스님 △시체를 묻은 매골승 △양반가의 제사를 지낸 스님 △종이 만드는 스님 △왕조실록을 지키는 스님들 △계(契)를 통해 사찰을 지킨 스님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맡은 바 일을 해왔던 스님들의 일상을 다뤘다.

조선은 양인(良人)들의 출가를 제도적으로 막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적지 않은 출가자가 존재했고 사찰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숭유억불'이라는 잣대만으로는, 혹은 개개인의 불심(佛心)만으로 조선시대의 불교를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시대의 고역을 감내하면서 사찰을 지켜왔고, 민중의 삶을 보듬어 온 조선의 'B급 스님들'의 삶을 '월간 불광' 9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챗봇 시대에도 불교는 삶의 나침반

'월간 불교문화' 9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월간 불교문화' 9월호(통권 제277호)는 '챗봇 시대 불교'를 다뤘다. 챗봇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 인공지능으로서, 특히 챗GPT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챗봇의 기능적 한계 사이의 차이를 탐구하고, 불교의 가르침과 챗봇 기술의 융합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챗GPT란 무엇인가'를,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는 '챗봇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를 다뤘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챗봇은 불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에서 챗봇이 불교적 의미의 자비로운 품성을 갖추면 인간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챗봇이 놀라운 수준의 설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설법에는 공감과 공유의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 보일 스님(해인사승가대학 학장)의 '챗봇 설법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도 눈길을 끈다.

하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캠페인에는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과소비의 적절한 기준을 찾아 미래 사회를 위한 과학적 소비를 할 것을 제안했다. 신성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449호 10면 "역경보살' 월운 대강백 일생 담다' 기사 제목 중 "易經 일생' 면면들'을 "譯經 일생' 면면들'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11면 '가장 정확한 '치문경훈' 易書'를 '가장 정확한 '치문경훈' 譯書'로 바로잡습니다.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